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HIV 대응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가상의 전염병 종식 정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새로운 HIV 감염과 진단에 대한 곡선을 성공적으로 역전

주정부, 전염병(ETE) 종식 [부록 보고서](#) 공개

2024년까지 HIV 전염병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 갱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제6회 연례 '전염병 종식(ETE) 정상회의'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가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질병률과 사망률 주간보고서에서 나중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으로 알려지게 된 5건의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고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HIV 전염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제공하려는 뉴욕주의 변함없는 노력 덕분에 새로운 감염과 진단에 대한 곡선을 성공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염병 종식 정상 회의'는 우리가 이룬 진전과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성찰하고 2024년까지 에이즈 전염병을 종식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올해의 ETE 정상회의 주제는 "팬데믹: ETE 및 코로나19 극복"입니다. 다음은 이 정상회의의 태그라인입니다. 주 전역의 제공업체와 커뮤니티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정상 회담 이벤트가 있는 "처음부터: 공중 보건의 40년(From the Ground up: 40 Years of Public Health)". ETE 정상 회의는 2020년에 달성한 HIV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HIV 전염병 내내 지속되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이 취한 전략을 강조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행정 부국장인 Kristin Pro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HIV와 AIDS와의 싸움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수십 년간의 연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노력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균형을 계속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감지할 수 없는 = 전염 불가능한"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오랜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뉴욕주의 ETE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리고 커뮤니티가 모든 인구에 대해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정과 두 배의 성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는 ETE 일정을 연장하고 있고, 2024년 말까지 ETE 목표를 달성하고 HIV 전염병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하며, 2025년 12월까지 ETE 측정 기준을 측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강 형평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그리고 인종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점 노력이 될 것입니다.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세계 에이즈의 날은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고, 특히 HIV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소수 지역사회에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ETE 정상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해 준 Hochul 주지사님과 그녀의 행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HIV/AIDS와의 세계적인 싸움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며, 뉴욕은 계속해서 좋은 공공 보건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HIV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저렴한 의약품과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종식(ETE) 부록 보고서는 2020년에 수행된 커뮤니티 피드백 세션의 요약을 제공하는 서면 보고서로서, 뉴욕주의 지난 5년간 ETE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요와 2020년 이후 ETE의 중점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36년 동안의 역사적이고 강력한 주정부의 대응 덕분에 HIV 유행에 대해 곡선을 구부려 수십 년 동안 증가해 온 뉴욕주의 HIV 확진자 수를 역전시켰습니다. 새로운 HIV 감염과 진단은 ETE 전체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고, 둘 다 2020년에 1,467명의 새로운 추정 감염과 1,933명의 새로운 HIV 진단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HIV 전염병 종식 노력을 통해 달성된 진전이 모든 집단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새로 HIV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히스패닉 사람들의 10만 명 당 새로운 발병률이 백인들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이 비율은 백인들보다 8배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2020년에 HIV 치료에 종사하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의 84%만이 바이러스로 억제된 바이러스 억제 결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계는 88%, 백인은 93%입니다. 바이러스 억제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HIV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인종/민족에서 감소했지만, 인종 불평등 격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PrEP 적용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노출 예방(Pre-exposure Prophylaxis, PrEP) 사용의 격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HIV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 중 과도하게 대표되는 두 집단인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백인이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커뮤니티보다 몇 배 낮은 비율로 PrEP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들 또한 HIV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불균형적으로 PrEP에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전반적인 진척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건강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동인으로 인종과 불평등 같은 다른 구조 및 형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지만, 주정부와 일선 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2020년과 2021년 초에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원격 건강, HIV 홈 테스트 키트, 드라이브 스루 HIV 테스트, 모바일 및 외부 실험실 서비스 사용, 환자 자가 스와핑 촉진 및 기타 노력을 통해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 공중 보건 커뮤니티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은 영웅적이었지만, 자원의 재배치로 인해 ETE 목표 달성이 지연되었습니다. 팬데믹 시작 이래, 주의 특정 지역에서 HIV 환자가 증가했고, HIV 검사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PrEP에 접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고, STI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주는 계속해서 다른 주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HIV의 MTC(어머니에서 자녀로 전이되는 현상)를 제거하는 ETE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 뉴욕주는 MTCT의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뉴욕주가 MTCT 제거(2013년, 2015~2020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며 뉴욕주가 6년 연속 목표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뉴욕 주의 비보험 진료 프로그램(Uninsured Care Program)은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4,500명 이상의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24,000명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 및 HIV/AIDS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약물 지원 프로그램(AIDS Drug Assistance Program, ADAP) 고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 부하 억제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부하 억제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계속 받고 주요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질병과 과다 복용과 싸우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의 중추인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은 놀라운 회복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냈습니다. 프로그램 활용률은 6개월 만에 빈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5%를 초과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과다복용 인식의 날(Overdose Awareness Day)은 과다복용으로 희생된 생명을 기리고 과다복용 종식을 위해 일하는 개인과 단체의 개인적, 집단적 업적을 치하하기 위한 가상 이벤트로 2021년 9월 9일에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커뮤니티 이벤트는 오피오이드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과다복용 방지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기리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최근에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뉴욕주가 전염병 종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